

재해발생시에 대비한다



유해물을 취급하고 있는 작업장소에서 재해가 발생된 경우, 긴급대응방법과 어떤 사태에 대비하여 평소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재해는 언제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내일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방법을 생각해 둔다는 것은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장에 있어서는 일상생활보다도 더 많은 종류의 위험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취급중 위험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1. 기계적 위험(기계에 낚, 감김, 가공물의 비래 등)
2. 화학적 위험(약품 등의 독극물이나 폭발성이 있는 위험물에 관한 것)
3. 에너지 위험(전기적 위험이나 화재, 광선, 열원 등에 관한 것)
4. 작업적 위험(작업형태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나 작업장소 특유의 것)
5. 행동 위험(추락, 전도 등 사람의 작업행동에 관한 것)

이 질문의 유해물 취급작업이나 그 작업장소 자체가 대표적인 위험잠재장소의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장에서는 유기용제(톨루엔, 키실렌 등)나 특정화학물질(염소 가스에 의한 것)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대부분이 안전 위생교육이 철저하지 못하거나 보호구의 미착용, 환기 불충분 등 초보적인 작업관리 미흡 등에 의한 것으로서, 작업자가 취급물질을 흡입하거나 접촉되는 등에 의한 급성폭로를 크게 또는 적게 받고 또한 부상이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재해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전제하에서 재해발생시의 실제적인 대응방법을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장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시 긴급대응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1) 가장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 게시, 2) 긴급처치방법의 매뉴얼 작성이 기본적인 요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함께 무엇을 확인해 둘 것인가. 여기에서 긴급시에 대한 대처기능으로서 5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① 관리면

긴급시나 재해시에 이용할 사내연락지시 계통을 확인해 둡시다. 이 경우 연락망이 체인과 같이 이어지면 기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최저한의 연락스텝을 짜서 정보와 지시



가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시에는 현장은 당황해 있기 때문에 2차 재해를 막기 위해서도 사태상황의 판단에 약간이라도 시간이 있다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지시를 기다려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교육면

부상자가 발생하여 일각을 다투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라인 감독자나 작업자를 대상으로 구급처치방법에 관하여 소방·구조대원 등이나, 각종 노동위생단체 등이 개최하는 교육기회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수강을 하도록 함을 권합니다.

사내에 있어서는 연중 1회는 그 자격자들과 산업의 등 의료스텝이 정보교환이나 기법 향상을 위한 회합을 가져 의식을 높이고 느슨했던 지식을 보급해가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③ 훈련면

구조에 관하여 지식이 있고 교육을 받고 있어도 막상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방재훈련시 등을 이용하여 연 1회는 실제로 행동해 보는 모의훈련을 하도록 합니다. 구명조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사내의 의료스텝과 그 기법을 복습해 둡시다.

④ 계몽면

작업자 전원에게는 우선 재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의식을 부여하도록 계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나버린 재해에 있어서는 스스로 몸을 보호하면서 재해의 확대와 피해자를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단위로 재해시의 도피방법, 피난경로 등에 대한 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철저히 해두도록 합니다. 통로의 확보를 일상적으로 신경쓰고 수하물 등으로 진로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표지나 표시는, 해당자나 주변사람이나 허둥될 때는 판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평소부터 피난경로를 인식해 두도록 노력합니다.

⑤ 행동면

각 작업단위에 있어서 그곳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나 약품이 어떤 것이 있는가, 당연히 관리자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순간적인 정보제공시의 정확할 것을 말합니다. 각 물질마다 MSDS를 이용해서 그 독성이나 대처방법을 정리한 화합물질 시트를 작성해 둬는 물론 산업의(상근·비상근 불문)와 위급할 때 대처할 행동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작업장마다 주시시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체로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직장에서는 약제의 오음이나 흡입시에 대한 초기대응에 대해서도 직장의 담당자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